

보너스 레슨: 일곱 봉인과 네 명의 기수

요한계시록 6장 1-1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이 장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길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말세의 네 명의 기수(the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는 문구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세가 왔음을 시사할 때, 또 암울한 미래를 시사할 때 쓰여지는 이 문구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의 알현실(throne room)에서의 예배 후에 꼭 이런 비참한 광경에 대하여 읽어야 하겠습니까?

톰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유감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세상의 질병이 밝혀져 그 본색이 드러나 폭로되고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그 질병들은 해결될 수 없다. 네 기수가 나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두루마리는 읽혀질 수 없다. 사자-어린양의 승리는 완성될 수 없다.

이것이 많은 독자들이 계시록 6장에 이르러 갖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계시록과 관련된 모든 대답과 마찬가지로, 이 대답도 부분적이고 난해한 구석이 있다. 계시록은 당신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지, 모든 것에 만족할 대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양께 온 창조 세계가 우리와 같은 영광스런 찬양을 노래하는 장엄한 알현실 장면을 경축했다. 우리는 그분이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경축했다.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척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책장을 넘기고 거기서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어두운 악의 권력이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드러나야 한다. 철저한 기도로 치유되기 전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케케묵은 죄책감과 슬픔의 기억들이 폭로되어야 한다. 계시록은 말하자면 깊이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는 고된 목회적 분투의 우주적 변형이다. 세상의 영혼은 당면한 문제와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정복과 폭력, 억압, 죽음 자체의 오랜 원형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이 몇 년 더 버티도록 대중 봉합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양이 두루마리에 찍힌 처음 네 봉인을 뿜 때, 세상의 질병을 치료할 네 가지 영광스런 해결책 대신 네 생물이 네 말과 기수를 소환해 저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그런 것 같다). (이상한 네 기수는 스가랴 1장과 6자의 환상에서 많은 내용을 빌려왔지만, 여기서서는 전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첫 번째 환상, 흰 말과

활을 든 기수는 간혹 19:11 과의 부분적 유사점에 근거해 메시아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내 생각에, 첫 번째 기수는 여기저기 공격하여 강력한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다스릴 주권(‘면류관’)을 주장하는 지상의 정복 왕들을 상징한다. ‘봉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난 일은, 세상의 질병을 해결할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에서 읽혀지기 전에 인간의 정복과 억압 세력이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기수에도 잘 들어맞는다. 두 번째, 겉모양의 피상적 평화마저 지상에서 제거하는 불타는 붉은 말과 그 기수는 모든 세기마다 잘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순서의 검은 말은 흔히 국내외 폭력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경제적 문제를 상징한다. 생필품, 가난한 백성의 주요 식단 가격이 폭등했다. 사치품 및 기름과 포도주는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희생삼아 훨씬 더 부유해지게 해준다. 창백한 말—죽음을 등에 태우고 죽은 자들의 거처, 지옥(Hades)이 인격화된 생물로 그 뒤를 따른다—은 모든 독재자와 모든 적그리스도가 가하는 궁극적 위협이다. 인간의 역사는 그들이 활개 치는 시기 전에 전쟁과 기극을 비롯한 수천 가지 다른 일들이 사람들을 제멋대로 주물렀음을 거듭 반복해 기록한다.

이들 넷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기본적인 질병이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누비는데, 두루마리의 구원 메시지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게 위해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앞서 나는 그들이 대표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적절한 때 이것을 과해쳐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특히 지난 세기에 서구의 주류 교회들은 인류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며 피상적인 차원 말고는 평화가 전혀 없는 데도 ‘평화, 평화’를 외쳤다. 우리는 기꺼이 표면 아래를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이 일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탄생해야 한다면, 옛 창조 세계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다루어져야 한다 (60-62).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고통들을 돌아보기를 피하거나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2.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고통들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싶어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